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6호 2004년 1월 8 (목)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소기업에 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지원

중기청은 영세 소기업에 대해 2004년도에 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지원 프로그램(SLP)을 도입·운영하여 신용을 통한 자금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금융기관의 중기 대출규모는 증가세에 있는 가운데도 담보력 있고 우량한 중소기업으로 금융자금이 집중되는 반면, 영세소기업은 자금난이 심화되는 등 자금조달상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영세 소기업의 고질적인 자금난 완화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SLP)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SLP(Special Loan Program For Small Business)

현재 검토되고 있는 특별 보증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을 소기업특별법상의 소기업중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으로 하여, 영세한 소기업에만 한정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되, 특히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

▶통상적으로 85%로 운영하던 부분보증비율을 90% ~ 100%로 상향조정하여 금융권의 추가적인 담보 요구나 연대보증 입보를 제한

▶지원내용은 소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계·설비 도입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써 업체당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

▶운전자금 지원금액 사정기준도 기존의 매출액의 1/4 이내로 운영하던 것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사업전망, 경영능력, 기술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접수하고 중진공은 심사를 거쳐 보증기관에 추천을 하면 추천된 기업에 대해서 보증기관은 약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은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하게 된다.

▶ 경영지원국
자금지원과
(042-481-4377)

인력지원특별법 1월부터 시행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변화와 구조적인 인력난에 중장기적 대응을 위하여 2003년 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200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월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연구·기술인력 활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벤처기업에만 허용되던 교수·연구원의 겸임·겸직을 일반중소제조업까지 확대하고, 대학내 중소기업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특례인정하고,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 활용시 사증발급추천서를 발부하고 활용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인력유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기피요인(열, 분진, 악취 등)해소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주택 특별분양, 창업지원우대 등 장기근속자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중소기업 홍보·교원 연수 등의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필요인력 양성·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중소기업과 지방대학간 산학협력, 중소·대기업간 인력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연계를 일괄제공하는 "청년채용패키지사업"을 신규추진하고,

청년 채용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10년이상 군장기복무자는

전역 1년전부터 중소기업에서 유급의 현장연수가 가능해져 전역후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하게 된다

중소기업이 '06년부터 연차시행 예정인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경영상담·컨설팅의 제공, 신규 근로자 채용시 장려금 지급,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공정혁신을 지원한다.

끝으로, 관계 기관간 중소기업 인력정책 조정을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중소기업인력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 경영지원국
인력지원과
(042-481-4512)

창업보육기업 공동 전시판매장 개설



중기청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서울 아바타쇼핑센터(명동, 구 코스모스백화점)에 "BI입주기업 공동전시 판매장"을 12. 26일 개장했다.

동 공동전시판매장은 한국창업보육협회가 중소기업의 위탁을 받아 아바타쇼핑센터 4층에 설치하였으며

입점업체 및 품목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선적으로 7개 업종 43개 업체의 51개 입점품목을 선정하였다.

동 매장은 초기에 한국창업보육협회가 직영토록 하고, 단계적으로 전문유통업체를 설립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벤처기업국
창업지원과
(042-481-4408)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간 부분보증제도 시행

중기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16개 지역재단과 금융기관간 부분보증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04년부터 부분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분보증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손실보전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분담하는 제도로써 보증부 대출금액의 85%는 지역재단이 나머지 15%는 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나누어 보증하는 제도로써

지역재단의 보증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분보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신용위험을 지역재단과 금융기관이 일정부분씩 분담함으로써 보증기관의 부실채권 감소를 통한 여신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증금액의 15%를 금융기관에서 보증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역재단과 금융기관간 효율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상호간에 신용보증 분담을 통해 사업성과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영지원국
자금지원과
(042-481-4385)

중기 구조조정펀드 2천억원으로 확대

중기청은 1천2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중소·벤처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금년 1월까지 2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정부자금 349억원을 토대로 국민연금 374억원 등 민간출자 850

억원을 유치해 1천2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완료했다.

지금까지 조성된 펀드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KTB 네트워크의 SBC-KTB(340억원), IMM파트너스의 IMM 7호(280억원), 네오플러스의 네오플러스 03-3호(304억원), 벨류미트인베스트먼트의 벨류미트 2호(215억원) 등이다.

이 펀드는 향후 3-5년간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 중인 기업, 채권금융기관 관리기업, 자본잠식 기업 등의 경영정상화와 M&A를 위해 투자될 예정이다.

▶ 경영지원국
자금지원과
(042-481-4377)

해외전시회 · 시장개척단에 70억원 지원

중기청은 금년도에 총 100회의 해외전시회 · 시장개척단에 70억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해외전시회는 총 72회를 파견할 계획으로,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기계·섬유 분야에 45회를 배정하여 수출 주력업종의 해외전시회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및 환경 분야에 3회, 고부가가치

업종인 보석·안경 등도 20회를 지원한다.

시장개척단은 총 29회를 파견할 계획으로, 아시아 지역에 9회, 동유럽·러시아·CIS·중동·아프리카에 11회 등을 배정하여 미개척 틈새시장의 시장 선점을 적극 추진한다

향후, 중기청은 KOTRA 및 인터넷 바이어 알선

전문업체 등을 활용하여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시장정보 및 소비패턴 등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사전마케팅 전략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도록 주관단체 및 참가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경영지원국
판로지원과
(042-481-5567)

벤처기업 성공사례집 발간



중기청은 성공한 벤처기업 20개사와 실패한 벤처기업 4개사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한 「벤처, 재도약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벤처기업 성공스토리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NHN, 다음 등 한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 20개사의 성장과정과 성공요인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 주요 소개업체 : 다음 커뮤니케이션, NHN, 레인콤, 웹젠, 벨웨이브, 기가텔레콤, 휴맥스, 토필드, 아이디어스 등

또한, 실패사례로 소개된 4개 기업은 창업초기에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 벤처기업인들이 귀감을 삼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번에 중기청이 벤처기업의 성공 및 실패스토리를 발간하게 된 것은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왜곡된 시장평가를 불식하고, 벤처기업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릴 목적으로 지난 9월부터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책자화한 것이다.

▶ 벤처기업국
벤처정책과
(042-481-4394)